

W_F_262

할아버지를 지붕 위로 던져버린 할머니

2017년 5월 17일, 성산읍 수산1리 수산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고인옥(여, 1942년생, 성산읍 수산1리)

제보자2: 김대옥(여, 1932년생, 성산읍 수산1리)

- 줄거리: 할머니가 지붕 위에 새를 올리는데 할아버지가 욕을 하니 샷단을 지붕에 던지듯 이 할아버지를 지붕 위로 던져버렸다.

[제보자1] 옛날 초가집 잇지 안해요? 초가집 있는데 지붕을 일다가 이제, 할머니가 아래 서, 새를 던지는데 이렇게 올려서, 새 올려사 집을 일지 안합니까? 경 행 허는데, 잘못 올렸겠 허멍,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한티.

[제보자2] 할아버지가 누려오란.

[제보자1] 저 욕을 허니까, 막 야단치어. 옛날은 욕이엔 아니하고, 막 야단을 치니까, 할아버지가 내려오렌, 할머니가. 게난 할머니가 막 쎈 할머닌디. 하르방을, 이젠, 샷단? 추록 지붕더레 던졌다고 헛주.

[제보자2] 할망이 던졌주기.

[제보자1] 예. 할망이 던졌수게. 할망이 던졌덴 헙디다.

- 핵심어 : 새, 할망, 초가집, 지붕, 하르방, 할아버지, 할머니